

셰일가스, 영국 매장량 많아도 고민

랭커셔 · 요크셔에 37조입방미터 매장 ... 인구과밀 지역으로 반발 거세

영국 정부가 셰일가스(Shale Gas) 개발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환경과피 논란으로 셰일가스 개발이 계속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장량 증가로 에너지원 확보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6월27일(현지시간) 영국 지질연구소에 따르면, 잉글랜드 북부 랭커셔와 요크셔의 셰일가스 매장량이 37조입방미터로 영국에 수십년 동안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셰일가스 매장지인 2개 지역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예상을 뛰어넘은 것으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면 에너지 비용 절감 및 세수 증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셰일가스전 개발은 환경과피 논란과 인구과밀 지역에 대한 개발문제에 부닥쳐 여전히 경제성이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환경론자들은 셰일가스 생산과정에서 약한 지진이 유발되고 수질오염이 심화될 수 있다며 가스전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셰일가스 개발이 본격화한 북미지역과 달리 영국의 셰일가스층이 인구 과밀지역에 인접한 상황도 난점으로 지적됐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가스전 개발에 따른 환경과피로 생활여건이 악화되고 주택가격이 내려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셰일가스 시추기업인 쿼드릴라(Cuadrilla)가 랭카스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험시추 사업은 1년째 중단된 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쿼드릴라는 사전비용으로만 1억파운드(약 1751억원) 이상을 투입했다며 경영압박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에너지 당국인 에너지전력청(Ofgem)은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셰일가스전 개발 속도를 높인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도 “셰일가스 개발 추진을 위해 관련 프로젝트와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개발 활성화 정책을 예고했다.

정부의 개발 활성화 대책에는 주민보상 외에 유전 매출의 1%를 지역사회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6/28>